

구약논찬

제 17권 2호(통권 40집) 2011년 6월 30일

김 진명(서울장신대)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 이야기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해석:
민 15장 32-36절에 대한 편집비평과 구조주의 비평 연구

33

본 논문은 민 15장 32-36절에 관한 편집비평과 구조주의 비평 연구의 결과이다. 저자는 민 15장 32-36절을 민 13-14장과 연결된 넓은 문맥에서 파악하기보다, 민 15장 자체 문맥 안에서 먼저 그 독특한 의미와 역할을 해석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민 15장 30-31절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저자는 민 15장 30-31절의 ‘의도적 범죄’에 관한 율법과 이를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례(판례)’로서 민 15장 32-36절의 의미와 역할을 해석한다.

Kim, Jin Myung A Study of Redaction Criticism and Structural Criticism Applied to Numbers 15: 32-36: An interpretation for the meaning and role of the episode of the wood-gatherer on Sabbath 33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 이야기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해석: 민 15장 32-36절에 대한 편집비평과 구조주의 비평연구

김진명 | 서울장신대

1. 들어가는 말

민 15장은 다양한 제의 규정들의 수집물로 구성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¹⁾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여러 가지 제의 규정들이 나열된 본문구성 가운데, 특별히 15장 32-36절의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의 이야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²⁾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도 문체와 내용의 차이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이 부분의 역할에 관하여, 노빅 (T. Novick)은 민 13-14장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탐과 원망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사건’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사건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하였다.³⁾

- 1) 민수기 15장에 수록된 다양한 제의 규정들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5: 1-16 화제, 번제, 화목제 (서월제, 낙헌제), 절기제 2) 15: 17-31 거제, 화제, 속죄제 3) 15: 32-36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 이야기 4) 15: 37-41 의복 장식에 관한 규정.
- 2) 오경 내에서 안식일과 관련된 12개 본문들은 다음과 같다. 출 16: 22-30, 20: 8-11, 23: 12, 31: 12-17, 34: 21, 35: 2-3, 레 19: 3, 30, 25: 2-7, 26: 2, 신 5: 12-15. 그 외에 안식일 준수 문제와 관련하여 안식일의 창조 (창 2: 1-4), 안식일 범한 자에 대한 처벌 (민 15: 32-36), 안식일 제사 규정 (민 15: 32-36)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민 15: 32-36은 안식일 관련 규정들 가운데 유일하게 구체적인 처벌을 언급한 본문이다. James W. Watts, *Reading Law*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68쪽 참조.
- 3) Tzvi Novick, “Law and Loss: Response to Catastrophe in Numbers,” *HTR* 101:1 (2008), 1-14쪽. 노빅은 민 15: 32-36에서 율법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결정을 말하고 있다는 점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강조점은 달리하고 있다.

그는 본문 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결정이 새로운 율법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이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법적인 권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본문 자체의 문맥보다는 민 13-14장과의 연속선상에서 15장 32-36절의 의미를 해석할 것을 제안하였다.⁴⁾ 이러한 해석은 안식일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언약의 표징’으로 설명한, 출 31장 12-17절의 내용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나무한 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세워진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안식일’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의 결정을 재확인함으로써, 그 관계가 민 13-14장의 심판 사건으로 인하여 파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 15장 32-36절의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 이야기에 관한 노빅(T. Novick)의 해석은, 민 15장을 벗어난 범위의 넓은 문맥 안에서, 본문의 기능과 의미를 새롭게 보여줄 수는 있지만, 민 15장 자체의 문맥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의 독특한 의미들을 놓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 15장의 문맥 내에서 32-36절 본문이 갖는 의미와 역할에 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이 본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의도에 의해 민 15장 내에서 현재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는가?” 또한, “최종 본문 상에서 본문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해 볼 때, 과연 15장 본문 내에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사항들과 메시지는 무엇인가?”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본문을 검토해보려고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성경 본문에 대한 연구방법론들 가운데, 특별히 ‘편집 비평’과 ‘구조주의 비평’의 범주에 포함시켜 살펴볼 수 있는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론을 본문에 적용하여 주석적 연구를 시도하려고 한다.⁵⁾ 우선, ‘맛소라 본문’(MT)과 칠십인경(LXX)의 평행본문 비교를 통해, 32-36

4) T. Novick, *윳글*, 3-4쪽. 레빈(Adriane Leveen)도 민 15: 22-31에 포함된 의도적인 범죄에 관한 내용이 14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의도적인 불평과 원망 사건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Adriane Leveen, *Memory and Tradition in the book of Numb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106쪽. 올슨(Dennis T. Olson)은 민 11-14장이 민 15: 22-31의 개인적인 죄와 공동체의 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데니스 올슨, 「민수기」(차 중순 옮김), (현대성서주석), (서울: 장로교출판사, 2000), 159쪽. 원제는 Dennis T. Olson, *Numbers*,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6).

5) 필자는 편집비평방법론의 역사비평적인 전제들에 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성경본문에 대한 하나의 연구 방법론으로서, 편집비평을 본문 연구에 적용하는

절 본문의 특징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일로 이 과정을 시작하고자 한다.

2. ‘맛소라 본문’(MT)과 칠십인경(LXX)의 비교를 통한 본문이해

1) 민수기 15장 32-36절에 대한 본문비평⁶⁾

(1) MT와 LXX 본문의 절별 대조 및 해설

וַיְהִי בַּיּוֹם הַהוּא יִשְׂרָאֵל בְּמִדְבַּר וַיִּמְצְאוּ אִישׁ מִן הַשִּׁבְתִּים
(32)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광야에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안식일에 나무들을 수집하는 사람을 발견하였다.)

(32) Kai ἦσαν οἱ υἱοὶ Ἰσραὴλ ἐν τῇ ἐρήμῳ καὶ εὔρον ἄνδρα συλλέγοντα ξύλα τῆ ἡμέρα τῶν σαββάτων.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광야에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안식일들의 그 날에 나무들을 수집하는 사람을 발견하였다.)

MT의 **הַשִּׁבְתִּים**(하 사바트/그 안식일)와 LXX의 τῶν σαββάτων(튼 사바튼/그 안식일들)에서는 단수와 복수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⁷⁾. LXX의 경우에 ‘그 날’(τῆ ἡμέρα)을 ‘그 안식일들’(τῶν σαββάτων)의 정관사를 포함한 복수형에 결합시킴으로써,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의 행위가 단순하게 어느 한 날 우연히 발생한 일회적인 일이 아니라는 어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 표현은 다음의 33절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וַיִּקְרִיבוּ אֶת הַמִּצְאִים מִקְשָׁשׁ עֲצִים
אֶל-מֹשֶׁה וְאֶל-כָּל-הָעֵדָה

(그래서 그들이 나무들을 수집하는 사람을 모세에게와 아론에게와 온 회중에

하나의 실 예와 그 결과를 제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가고자 한다.

6) 다음의 사역에서는 MT 본문과 다른 LXX 본문상의 차이는 필기체로(예: **양식일**), 완전한 첨가로 판단되는 부분은 밑줄 그은 샘물체로(예: **안식일**) 기록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하였다.
7) John William Wevers, *LXX-Notes on the Greek Text of Numbers-*, (Atlanta: Scholars Press, 1999), 252 쪽. A(Codex Alexandrinus)에서는 ἐν(엔)을 τῆ(테) 앞에 첨가시키고, σαββάτων(사바튼)을 복수 속격 형태로 보아 σαββάτου의 단수 속격으로 변경하여 기록하였다. 이에 대하여 웨버(J.W. Wever)는 히브리어 **שַׁבָּת**(사바트)가 아람어 강조형태인 σαββάτα(사바타)로 번역되었으나, σαββάτα(사바타)는 σαββάτων(사바튼)의 중성 복수형으로 쉽게 오해되었음을 지적한다.

계로 데리고 왔다.)

(33) καὶ προσήγαγον αὐτὸν οἱ εὐρότεροι αὐτὸν συλλέγοντα
ξύλα τῆ ἡμέρα τῶν σαββάτων πρὸς Μωϋσῆν καὶ Ααρὼν καὶ
πρὸς πάσαν συναγωγὴν υἰῶν Ἰσραὴλ.

(그래서 그 발견한 자들이 그 안식들의 그 날에 나무들을 수집하는 자를 모세와
아론에게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에게로 데리고 왔다.)

MT의 לָקַח(엘/~로)에 해당하는 πρὸς(프로스/~로)가 LXX에서 사용되었다. MT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회중에 각각 전치사를 사용했지만, LXX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MT의 ‘모든 회중’(כָּל הָעָם)을 콜 하에다)이라는 용어와 다른 형태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πάσαν συναγωγὴν υἰῶν Ἰσραὴλ)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양쪽에 전치사 πρὸς(프로스)를 첨가하였다. 또한 LXX에는 MT에 없는 ‘그 안식일들의 그 날에’(τῆ ἡμέρα τῶν σαββάτων 테 헤메라 톤 사바톤)라는 구문이 32절에 이어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는 반복법을 통하여 안식일 문제를 강조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번역자가 ‘그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의 행위가, 일회적으로 발생했던 단순한 실수 보다는, 안식일마다 계속되어져 왔음을 암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복수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웨버스는(Wevers)는 LXX의 υἰῶν Ἰσραὴλ(휘은 이스라엘/이스라엘의 자손들의)에 대해서, 불필요한 주석부분이라고 평가하였다⁸⁾. 그러나 이 표현은, 오히려 32절의 οἱ υἱοὶ Ἰσραὴλ(호이 휘오이 이스라엘/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와 함께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반영하고,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וַיִּנְיחוּ אֹתוֹ בַּמִּשְׁמָר כִּי פָרַשׁ מִחַי-יְשׁוּעָה לְ (34)

(그러나 그들은 그를 옥에 가두었다. 왜냐하면 그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가 판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34) καὶ ἀπεθεντο αὐτὸν εἰς φυλακὴν, οὐ γὰρ συνέκριναν,
τί ποιήσωσιν αὐτόν.

8) John William Wevers, *Text History of the Greek Number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2), 253쪽.

(그리고 그들은 그를 옥에 가두었다. 왜냐하면 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그들이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MT에서 שפ(포라스/결정되다)는 수동형(pual)으로 쓰여졌으나, LXX에서는 συγκρίνω(신크리노/결정하다, 설명하다)의 제1과거 능동태 직설법의 형태로 (συνέκριναν,쉬네크리난/판단했다) 번역되었다.

וַיֹּאמֶר יְהוָה אֶל־מֹשֶׁה מִתּוֹתִי הָאֵשׁ רָגַם אֵת
בְּאֲבָנִים כָּל־הָעַדָּה מִחוּץ לַמִּחֲנֶ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남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하여라. 모든 회중은 진 밖에서 돌들로 그를 쳐라.)

(35) καὶ ἐλάλησεν κύριος πρὸς Μωσῆν λέγων Θανάτω θανατούσθω ὁ ἄνθρωπος, λιθοβολήσατε αὐτὸν λίθοις, πάσα ἢ συναΐωή.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 남자를 반드시 죽여라. 너희들은 그를 돌로 쳐라. 온 회중은!)

LXX에서는 יהוה(아도나이/야훼)를 κύριος(큐리오스/주님)로 번역한다. ἐλάλησεν(엘라레센)에 대하여 웨버스(Wevers)는 LXX에서 λαλέω(랄레오/말하다)가 일반적으로 דבר(다바르/말하다)로 번역되고, εἶπον(에이폰/말하다)은 אמר(아마르/말하다)로 거의 번역되고 있는 점을 들어, LXX의 원래 본문에 דבר(다바르/말하다)가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LXX에 첨가된 λέγων(레곤/말하다)은 직접언급의 표시로서 사용되었다고 설명한다.⁹⁾ MT의 “반드시 죽일지니”(מתּוֹתִי מִתּוֹ, 모트 유파트) LXX에서도 “반드시 죽여라”(Θανάτω θανατούσθω 타나토 썬나투스쓰)라는 강조형태의 문장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MT의 “진 밖에서”(מִחוּץ לַמִּחֲנֶה)에 해당하는 용어는 LXX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וַיֵּצֵא אֹתָם לִלְעָדָה אֶל־מִחוּץ לַמִּחֲנֶה וַיִּרְגְּמוּ
אֵת בְּאֲבָנִים וַיָּמַת כָּאֲשֶׁר צִוָּה יְהוָה אֶת־מֹשֶׁה
(그래서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돌들로

9) John William Wevers, *윗글* (1999), 253쪽 이하.

쳤다. 그러자 그가 죽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던 바대로.)

(36) καὶ ἐξήγαγον αὐτὸν πάσα ἡ συναγωγή ἔξω τῆς παρεμβολῆς, καὶ ἐλιθοβόλησαν αὐτὸν πάσα ἡ συναγωγή λίθιος ἔξω τῆς παρεμβολῆς, καθὰ συνέταξεν κύριος τῷ Μωσῆ. (그래서 온 회중은 그를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에서 돌로 쳤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던 대로.)

LXX에서는 “진 밖에서”(ἔξω τῆς παρεμβολῆς)라는 용어와 “온 회중이”라는 용어(πάσα ἡ συναγωγή)를 두 차례 반복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문자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으로 끌고 나갔고,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에서 돌로 쳐 죽였다”로 번역할 수 있다. MT에서는 “그리고 그가 죽었다”(וַיָּמָוֹת)라는 문장이 추가되어 있다. “야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대로”라는 표현은 하나의 양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1: 19, 54, 2: 33, 34, 3: 51, 4: 49, 8: 3, 20, 22, 9: 5, 15: 36, 17: 11, 26: 4, 27: 11, 23, 30: 1, 17, 31: 7, 21, 31, 41, 47).

(2) MT 본문과 LXX 본문에 대한 전체적인 해설과 평가

사해사본의 발견 이후로 LXX에 대하여 단순한 MT 본문의 번역이 아닌, MT와는 다른 히브리어 대본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 15장 32-36절 본문에서, LXX은 전체적으로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문자적인 번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용어들의 선택과 반복 혹은 첨가를 통하여, 번역작업 가운데 반영된 주석의 특징들로 판단해볼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32절에 연이어 33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LXX의 본문에서 “그 안식일의 그 날에”(τῆ ἡμέρα τῶν σαββάτων 테 헤메라 톤 사바톤)라는 용어의 첨가는, 정관사가 결합된 복수형으로 ‘안식일’ 개념을 표현함으로써, 히브리어 본문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안식일 범한 자’의 노동행위를 유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안식일 마다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어감상의 특징은 안식일 범한자의 ‘고의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번역일 수 있다.

LXX의 3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적인 정체성’¹⁰⁾과 ‘사람’을 강조한

요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문제에 있어서, ‘장소’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상실한 이집트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상황이, LXX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¹¹⁾. LXX의 35절에서 ‘말하다’라는 뜻의 λαλέω(랄레오/말하다)와 λέγω(레곤/말하다)이라는 용어들을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장소에 대한 언급을 생략한 점도 이집트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상황이 반영된 주석적인 번역 작업의 한 예로 제시해볼 수 있다. LXX에서는 ‘장소’ 문제보다는 ‘사람’을 강조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민 15장 30-31절과 32-36절의 편집비평 연구

민 15장 전체 내용은 다양한 제의 관련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른바 P에 속한 부분으로 구분되었다¹²⁾. 민 15장 32-36절의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본문이 속해 있는 15장 전체의 구성을 재검토해 보고, 다른 본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본문을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
- 10)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주제에 관하여는, 한 동구,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비전,” 『구약논단』 제 14권 3호 (2008), 10-30쪽, 이 희학, “대하 30장 25절의 ‘회중, 이스라엘, 나그네’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제 16권 2호 (2010), 10-28쪽, 서 명수, “민수기의 새로운 공동체 형성과 저항,” (목회와신학편집부 엮음), 『민수기』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141-157쪽을 참조할 수 있다.
- 11) 이와 관련된 주제는, 박 동현, “칠십인경 렘 9: 21(22) - 10: 21에서 찾아본 애굽 전통의 몇 가지 경향,”(류 호준 편집),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주토 최 의원 박사 신학교육 40년 기념 논문집)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187-209쪽을 참고할 수 있다.
- 12) Georg Fohrer, (방 석종역), 『구약성서개론(상)』 (서울: 성광문화사, 1985), 287쪽 참조. 원제는 *Einleitung in der Alte Testament*, 1965(1979); Terence E. Fretheim, *The Pentateuch*,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138쪽. 프레트하임은 민수기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P자료이고, 포로기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P 기자가 포로시대를 모세와 함께 했던 광야 상황으로 옮겨놓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노빅(T. Novick)도 안식일 계명과 관련된 민 15: 32-36의 광야 배경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벨론 포로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연관지을 수 있다고 보았다. T. Novick, 윗글, 14쪽. 민수기의 P자료에 관한 문제는 Adriane B. Leveen, “Variations on a Theme: Differing Conceptions of Memory in the Book of Numbers,” *JSOT* 27 (2002), 206-209쪽을 참조할 수 있다.

1) 민수기 15장의 구성과 내용

- 15: 1-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
 - 2절 땅에 들어가서
 - 3-14절 각종 제사에 대한 규정
 - 15-16절 회중과 타국인에게 동일한 적용
- 15: 17-3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
 - 18절 땅에 들어가서
 - 19-21절 제사에 대한 규정
 - 22-25절 회중이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 규정
 - 26절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에게 동일한 적용
 - 27-28절 한사람이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 규정
 - 29절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에게 동일한 적용
 - 30-31절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에게 동일한 적용
 - 사람이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차별 규정 - ‘백성 중에서 끊어짐’
 - 32-36절 안식일 범한자의 이야기 - ‘돌로 쳐 죽임’
- 15: 37-4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7)
 - 38-39절 옷단 귀에 다는 술
 - 40-41절 전체 결론

민 15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개역개정)라는 반복된 구문을 중심으로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단락과 둘째 단락은 매우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30-36절 부분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17-36절의 두 번째 단락 가운데 안식일 범한 자의 이야기에 해당하는 32-36절은 부지중에 지은 죄에 관한 규정(회중: 22-26, 개인: 27-29)과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관한 규정(30-36) 중에서 후자에 속한다.¹³⁾

2) 민 15장 32-36절의 편집비평적 문제

통시적인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민 15장 32-36절을 연구하는 이들은 본문의 독립적인 성격과 후대의 편집부분이라는 평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여준다.¹⁴⁾ 하지만 이 본문을 어떤 본문과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할 것인가에

13) 왕 대일, “민 15-19장: 이 법대로 할 것이라,” (목회와신학편집부 엮음), 『민수기』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283쪽 참조.

14) Martin Noth, *Das Alte Testament Deutsch 7*, (Göttingen: Vandenhoech & Ruprecht, 1966), trans. James D. Martin, *The Old Testament Literary* (OTL), (Philadelphia, Pennsylvania: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다.

(1) 민 13-14장과의 관련성: 마틴 노트(M. Noth)의 입장

노트는 15장에서 비조직적으로 배열된 다양한 제의-의식 규정들의 수집물이 오경의 설화들 가운데서 왜 이 위치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명확치 않다고 지적하였다. 개별적인 부분들은 서로 간에 연결성이 없이 수집되었지만, 고대 법률들과 긴밀하게 결합된 부분들과 이들에 대한 확장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오경의 매우 후기 부분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리고 32-36절 부분에 대해서는, 첫 부분에서 '궤야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점으로 보아, 13-14장에 연결되었을 것으로 설명한다¹⁵⁾. 이 견해는 32-36절을 '법조문 형태'가 아닌 '이야기체'의 문장이라는 특징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2-36절을 현재의 15장에 위치하도록 편집한 의도를 찾으려는 시각에서 볼 때, 본문을 지나치게 독립적인 부분으로 취급하고, 한 단어만을 가지고, 그 앞에 위치한 13-14장과 연결된다는 판단은 미흡하다고 본다.

(2) 출 31장 14-15절과 출 35장 2절과의 관련성: 해리슨(R. K. Harrison)의 입장

해리슨은 민 15장 32-36절을 출 31장 14-15절과 출 35장 2절의 '안식일에 일한 자를 죽이려는 선행된 규정들과 연결시켜 본문을 해석하고,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판결에 따라서 완고한 범법자를 처벌한 것이라는 설명한다. 그리고 그 범법자가 만일 회개했다면 용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이고 있다¹⁶⁾. 이러한 견해 역시, 32-36절 본문을 현재의 위치와 문맥에서의 이해와 상관없이 다루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The Westminster Press, 1968) 114-117쪽 참고; George Buchamen Gray, *Numbers* (ICC), (Edinburgh: T&T Clark, 1976), 182-183쪽; Philip J. Budd, *Numbers* (WBC), (Waco: Word Books, 1984), 175-176쪽; R. K. Harrison, *Number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92), 227-229쪽 참고. BHS 본문에서도 32-36절 부분을 ㉑ 라는 단락 구분표시 사이에 넣어, 맞소리 전통에 반영된 단락표시를 보여주고 있다.

15) Martin Noth, *Das Alte Testament Deutsch 7*, trans. James D. Martin, *The Old Testament Litera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8) 114쪽.

16) R. K. Harrison, *Numbers*, 227-229쪽.

(3) 민 15장 22-31절과의 관련성: 그레이(G. B. Gray), 밀그롬(J. Milgrom)의 입장.

그레이는 32-36절 본문을 30절의 **בְּיָדָא**(베야드 라마/들어올린 손)에 관련된 미드라쉬적인 삽입으로 보고, 34절의 **בְּרִשָּׁה**(파리쉬/결정하다, 설명하다)라는 용어도¹⁷⁾ 미쉬나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레 24장 12절 이하의 ‘야훼의 이름을 휘방한 자 이야기’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지적한다.¹⁸⁾ 한편, 밀그롬은 민 15장 22-31절 부분의 구체적인 예로서 32-36절의 본문이 제시되었고,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자의 의도가 우연적인 것이었는지, 고의적인 것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였다.¹⁹⁾ 이 입장은 15장 자체의 문맥과 선행구절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32-36절의 본문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2-36절의 편집형태와 편집자의 편집의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세 번째로 언급했던 그레이와 밀그롬의 입장에 동의하며, 그 연속선상에서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현재 민 15장에 놓여지게 된 32-36절의 본문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왜 현재의 위치에 본문이 놓이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며, 32-36절 본문이 전후 문맥과의 관련성 속에서 다루어질 때, 현재본문의 보다 정확한 의미와 편집자의 의도를 해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3) 율법 규정의 관례로서 민 15장 32-36절의 역할

그레이와 밀그롬의 경우, 32-36절을 22-31절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해석하려고 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32-36절의 본문은 보다 엄밀하게 30-31절의 율법 규정에 대한 실증적인 관례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볼 수 있다.²⁰⁾

17) 쿰란 문서의 하박국 주석(1QpHab)에서는 **בְּרִשָּׁה**(페체르/해석)라는 단어를 특정한 도입형식으로 사용하여 본문해석을 시도하기도 했다. 김 덕중, “쿰란 공동체의 성서해석,” 『구약논단』 제 20집 (2006), 38쪽; 조 명기, “쿰란 공동체의 하박국 재해석,” 『구약논단』 제 20집 (2006), 10쪽 참조.

18) George Buchamen Gray, *Numbers* (ICC), (1976), 182-183쪽. 이에 대한 평가는 Michael Fishbane,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Press, 1985) 399쪽 참조.

19) Jacob Milgrom, *Number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New York: The Jewish Publication, 1990), 126쪽과 408-410쪽.

20) 왕대일, 『민수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378쪽.

(1) 30-31절과 32-36절의 관계; 율법-판례의 제공

24-26절 (회중의 범죄와 속죄-이스라엘 지손과 타국인의 동일한 적용)과 27-29절 (개인의 범죄와 속죄-이스라엘 지손과 타국인의 동일한 적용)은 동일한 문장구조와 용어들을 취하고 있으며, 30-31절과는 다른 구조를 보여준다. 그러한 점에서 30-31절은 선행구절들과는 분리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30-31절에서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לֹא יִשְׁפֹּט אִישׁ אֶת אֶתְמוּנָתוֹ** 1 **וְלֹא יִשְׁפֹּט אִישׁ אֶת אֶתְמוּנָתוֹ** (베하네페쉬 아셰르-타야세 베야드 라마/누구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개역개정])라는 구문과 관련된 ‘율법규정’의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의 문제이다. LXX에서 ἐν Χερὶ ὑπερηφανίας(엔 케이리 휘페레파니아스/들어올린 손을 가지고) 로 번역된 **וְלֹא יִשְׁפֹּט אִישׁ אֶת אֶתְמוּנָתוֹ** (베야드 라마/들어올린 손)는 ‘의도적인’이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²¹⁾, 30-31절의 본문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행할 경우, 그 행위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법률 조항’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자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과연 사형에 해당하는 어떤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물음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30-31절 자체만을 가지고 본문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용어와 규정의 모호함 때문에 본문에 나타난 율법 규정을 실제로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문의 편집자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32-36절에 기록된 ‘이야기’ 형태의 실제적인 예를 제시한 것으로 그 편집의도를 설명해 볼 수 있다. 편집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의도적인 죄에 해당되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안식일의 노동행위로 인해 사형이 집행되었던 한 사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30-31절에 연결된 32-36절의 편집의도에 대한 해석.

필립스(A. Phillips)는 민 15장 32-36절이 안식일 금지 규정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규정이 ‘직업적인 일’ 뿐만 아니라, ‘가사 일’에 까지도 적용된다는

21) Martin Jan Mulder(ed.), *Mikr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357쪽, John William Wevers, *윳글* (1999), 251쪽과 Jacob Milgrom, *Numbers*, (1990), 126쪽 참조. 고대 중동지역에서는 창이나 번개를 손에 들고 있는 신의 형상과 관련된 것으로서 적을 대적하는 신의 행동을 표현하는 용어였다.

점을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²²⁾. 이러한 견해를 근거로 32-36절의 편집의도를 해석해본다면, 안식일을 범한자의 ‘고의성’은 일단 전제로 하고, 이 규정이 단지 ‘직업적인 일에 적용될 수 있을지 아니면 ‘가사 일’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보여주기 위하여 32-36절이 편집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30-31절의 밀접한 관련성 가운데서 32-36절을 분석해 보면, 34절에서 모세와 회중들이 판단할 수 없었던 ‘애매함’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문제는 35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에 의해 사형선고로 결론지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맥과 정황을 볼 때, ‘누군가의 고의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30절 규정의 ‘모호성’과 34절에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세와 백성들의 ‘애매한 상황’은, 다른 방향에서 이 본문들의 주제를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결국 30절과 34절에 나타난 ‘애매함’의 요소들은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에게 고의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결정해야 하는, ‘고의성’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주제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고의성’의 문제는 단순하게 전제된 요소로 취급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32-36절 본문 편집자의 ‘중심 주제’였다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민 15장의 현재 위치에 놓여진, 32-36절은 1차적으로 30절에 언급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직접 관련된 본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고의성’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그러한 범법자의 고의성 여부를 결정하는 일의 어려움을 독자들에게 인식시키고, 그 판결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본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전체적인 평가

민 15장의 다양한 제의관련 율법 규정들 가운데 놓여진 32-36절의 ‘안식일 범한 자의 이야기’는 전통적으로 후대에 편집된 독립적인 부분으로 취급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32-36절의 편집의도를, 특별히 30-31절과의 밀접한 관계성 속에서 파악하였으며, 본문은 범법 행위의 ‘고의성’에 관련된 규정(30-31)의 판례로서 독자들의 실제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의도로 최종 편집자에 의해 현재의 위치에 놓여지게 되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안식일 범한 자의 ‘고의성’에

22) A. Phillips, “The Case of Woodgatherer Reconsidered,” VT 19 (1969), 125-128쪽, 이에 대한 평가는 M. Fishbane, 위글, 134쪽을 참조.

대한 문제는 LXX의 민 15장 32-36절의 ‘본문비평’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헬리어 번역상의 주석적인 부분들에서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점에서는 LXX의 번역이 MT보다, 본문의 편집의도를 독자들에게 더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 민 15장 30-36절의 구조주의 비평 연구

1) 민 15장 30-36절의 문제

오경에 수록된 ‘이야기’ 형식의 본문들 가운데, 민 15장 32-36절의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 이야기와 레 24장 10-23절의 ‘야훼의 이름을 훼방한 자의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두 본문 사이에서 매우 유사한 구조와 양식을 발견할 수 있다.²³⁾

민 15: 32-36	레 24: 10-23
32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를 사람들이 발견함	10-11a 싸우다가 야훼의 이름을 훼방한 사람을 발견함
33 그 사람을 발견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회중에게로 끌고 옴	11b 그 사람을 무리가 모세에게로 끌고 옴
34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옥에 가둠.	12 그를 가두고 야훼의 명령을 기다림
35 야훼의 신탁: 돌로 칠 것을 명함	13-14 야훼의 신탁: 돌로 칠 것을 명함
36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함	23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함

민 15장의 이야기는 십계명의 안식일에 관한 규정(출 20: 8-11, 31: 12-18)과 관련되어 있고, 레 24장의 이야기는 야훼의 이름에 관한 십계명의 규정(출 20: 7, 레 19: 12)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민 15장 32-36절의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 이야기는 십계명과 연결된 문제보다도, 그 앞의 30-31절에서 말하고 있는 고의적인 범법 행위에 관한 ‘율법규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차원의 ‘율법’과 ‘이야기’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²⁴⁾ 이러한 ‘고의성’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율법과 이야기의

23) Stephen K. Sherwood, *Leviticus, Numbers, Deuteronomy* (Berit Olam Studies in Hebrew Narrative & Poetry),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1), 163-164쪽 참조.

24) Gordon J. Wenham, *Exploring the Old Testament*, (Downers, vol. 1), (Grove: InterVarsity

구성은, 본문에 대한 편집비평 연구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결론들 가운데 하나였다.

민 15장 30-36절의 본문에 관하여, 메리 더글라스(Mary Douglas)는 모세까지도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으며, 민수기는 종종 범죄와 결백함의 문제를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교훈하고 있다고 보았다.²⁵⁾ 그렇다면, 민 15장 30-36절의 최종본문 상에서 모세와 사람들과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장에서는 편집비평을 적용했던 동일한 본문에 구조주의 비평적인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본문의 표층구조와 심층구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과 주제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²⁶⁾

2) 민 15장 30-36절의 구조주의 표층구조와 심층구조

(1) 민 15장 30-36절의 표층구조 분석.

구조주의 비평 주석의 중요한 전제는 언어의 문제이며, 특별히 본문상의 이분법적 대립의 언어와 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²⁷⁾ 민 15장 30-36절의 본문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을 ‘율법 준수자’(33, 36절)로 본다면, ‘안식일에 나무한 자’는 ‘율법 파괴자’(32, 33절)라는 대립된 역할로 규정할 수 있다. 언어적으로는 ‘안식일’(휴식, 32절)과 ‘나무 수집’(노동, 33절), ‘말씀을 업신여김’(불순종, 31절)과 ‘명하신대로 행함’(순종, 36절) 등의 대립적인 표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야훼’와 ‘말씀’과 ‘명령’이 하나님과 관련된 ‘기호’의 역할을 하고, ‘고의로 행하는

Press, 2003), 111쪽 참조. 민수기의 율법과 이야기 구조에 관하여는, T. E. Fretheim, 윗글, 138쪽; 왕 대일, “민수기의 두 형식, 이야기와 법,” 『민수기』 (두란노HOW주석),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105-122쪽; Mary Douglas, *In the Wildern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118쪽을 참조할 수 있다. 메리 더글라스(Mary Douglas)는 민수기 전체를 13개로 구성된 ‘율법’과 ‘이야기’형식의 본문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형식의 단락들이 원형구조(ring composition)를 이루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그녀는 민 15장을 ‘율법’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32-36절은 전형적인 ‘이야기’ 형식의 본문임을 알 수 있다.

25) M. Douglas, 윗글, 232쪽.

26) 구조주의 비평 방법론에 관하여는 Pamela J. Milne, *Vladimir Propp and the Study of Structure in Hebrew Biblical Narrativ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8)을 참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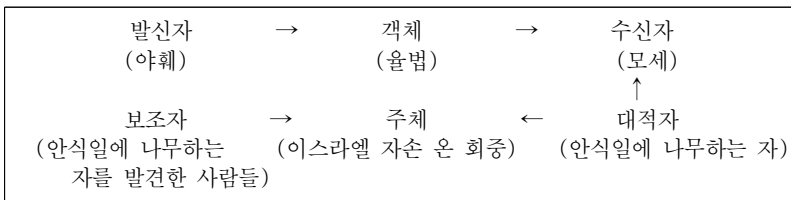
27) William Baird, “Biblical Criticism (8. Structuralism),” *ABD* (vol. 1), (1992), 735쪽; Daniel Patt, 「구조주의적 성서해석이란 무엇인가?」 (이 승식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35-40쪽(원제는 *What is Structural Exegesis?*).

자와 ‘모독하는 자와 ‘업신여기는 자와 ‘명령을 파괴하는 자’는 안식일 범한 자와 관련된 ‘기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 32-36절은 내용적으로 연속되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30-36절의 전체 본문은 AB/AB/A'B'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A 들어올린 손을 가지고 (=고의로) 행하는 자, 야훼를 모독하는 자. B 그는 끊어지게 된다.	30절
A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 명령을 파괴하는 자. B 그는 끊어지게 된다.	31절
A' 안식일에 나무들을 수집하는 자. 모세와 아론과 회중에게 끌고 옴. 그 사람을 옥에 가둠. 야훼의 신탁: 사형선고 B' 그를 돌로 쳐 죽임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2) 민 15장 30-36절의 심층구조 분석.

민 15장 32-36절의 이야기는 하나의 ‘설화구조’로 파악해 볼 수 있으며, 이 안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은 주체, 객체, 발신자, 수신자, 돕는 자, 대적 자의 ‘행역자 모델’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인물들이 본문의 이야기 안에서 형성하고 있는 이분법적인 대립 구조와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²⁸⁾



본문에서 하나님은 30-31절의 ‘율법’(객체)을 주신 수여자(발신자)이며, 안식일에 나무한 자의 ‘고의성’을 판결하는 자로서(35절) 역할을 한다. 모세는 30-31절의 율법 규정과 처벌에 대한 야훼의 신탁을(35절) 받는 자로서 (수신자)의 역할을 하며, 30-31절에 주어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돕는 자의 기능은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로 끌고 온 자들이 (보조자)

28) D. Patt, 윗글, 80-81쪽, 이동수, 「구약주석과 설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0), 304쪽 참조.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율법을 파괴하려는 자의 역할은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대적자)가 하고 있다.

본문에서 사용된 대립개념들은 본질적으로 '생명'(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과 '죽음'(안식일에 나무하는 자)의 이원적인 구조를 드러내 주며, 이 대립적인 구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결과임을 보여준다. 또한 '고의로 행하는 자'와 '모독하는 자'와 '업신여기는 자'와 '명령을 파괴하는 자'리는 표면적이며, 기호적인 표현들이, 결국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임을 볼 때, 이 사람은 단순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며, 율법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자의 의미(내용)를 갖는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

3) 민 15장 30-36절의 메시지

'구조주의 비평'이라는 공시적 방법을 가지고 본문을 보았을 때, 본문의 중요한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율법의 수여자로서 기능하며, 또한 사람들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34-35절). 이러한 본문의 묘사들은 하나님만이 율법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사람의 마음속까지도(고의적인 의도) 아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 본문의 심층구조 분석은 '안식일에 나무 하는 자'가 범한 죄의 고의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즉, 안식일 범한 자에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언어적인 표현들은 그가 사람에게 죄를 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으며, 그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드러내 주었다.

5. 나가는 말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민 15장에서 독특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32-36절에 대한 본문비평을 시도하였다. MT와 LXX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안식일을 범한자의 의도성을 부각시키는 용어들의 첨가 혹은 이집트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정체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편집비평'을 본문에 적용하였으며, 민 15장에서 32-36절은 '의도

적인 범법 행위'에 대한 규정(30-31절)과 관련하여, '고의성'을 드러내는 판결의 사례를 제시하기 위한 본문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구조주의 비평' 방법을 본문에 적용함으로써, 민 15장 30-36절은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고,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일 범한 자'가 저지른 죄의 고의성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것이며, 본문의 표층구조에 나타난 언어적인 '표현'들은, 그 죄의 성격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범죄라는 심층구조 상의 강조된 '내용'(의미)을 담고 있다는 해석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러한 내용들은 민 15장 32-36절의 본문이 민 15장 자체의 문맥 가운데서 갖는 독특한 의미와 역할이 분명하게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결과들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32-36절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넓은 범위의 문맥에서 본문을 해석하는 일과 본문이 수록된 민 15장 자체의 문맥에서 본문을 해석하는 일은, 일방적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시도됨으로써 본문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풍부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 본문의 주석적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역사비평적 전제를 가지고 '동시적 방법론'만을 적용할 경우에 본문의 본래적 형태와 메시지를 파괴하게 된다는 점이 비판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공시적인 방법론'은 본문의 역사성 문제를 간과한다는 점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민 15장의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 이야기에 두 가지 방법론을 적용하는 시도를 해보았고, 그 해석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적인 연구에서는 한 본문에 대한 '공시적 연구방법'과 '동시적 연구방법'의 동시적인 적용과 연구의 사례들을 분석해 보고, 그러한 연구 결과가 본문 해석에 미칠 수 있는 장점과 단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방법론이 갖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가치와 의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 참고문헌

김 덕중, "쿰란 공동체의 성서해석," 『구약논단』 제 20집 (2006), 35-58쪽.
데니스 올슨, 『민수기』 (차 중순 옮김), (현대성서주석), (서울: 장로교출판사, 2000).

- 원제는 Dennis T. Olson, *Numbers*,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6).
- 박 동현, “칠십인경 램 9: 21(22) - 10: 21에서 찾아본 애굽 전통의 몇 가지 경향,” (류호준 편집),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다』 (주토 최 의원 박사 신학교육 40년 기념 논문집),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 서 명수, “민수기의 새로운 공동체 형성과 저항,” (목회와신학편집부 엮음), 『민수기』 (두란노HOW주석),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 왕 대일, “민 15-19장: 이 법대로 할 것이라,” (목회와신학편집부 엮음), 『민수기』 (두란노HOW주석),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 _____, “민수기의 두 형식, 이야기와 법,” (목회와신학편집부 엮음), 『민수기』 (두란노HOW주석),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 _____, 『민수기』 (대한기독교서회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 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이 동수, 『구약주석과 설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0).
- 이 회학, “대하 30장 25절의 ‘회중, 이스라엘, 나그네’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제 16권 2호 (2010), 10-28쪽.
- 조 명기, “쿰란 공동체의 하박국 재해석,” 『구약논단』 제 20집 (2006), 10-34쪽.
- 한 동구,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비전,” 『구약논단』 제 14권 3호 (2008), 10-30쪽.
- Baird, W. “New Criticism,” *Anchor Bible Dictionary* (vol. 1) (1992), 735쪽.
- Budd, P. J., *Numbers, Word Biblical Commentary* (WBC), (Waco: Word Books, 1984).
- Douglas, M., *In the Wildern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Fishbane, M.,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Press, 1985).
- Fohrer, G. *Einleitung in der Alte Testament*, 1965(1979), 방 석종역, 『구약성서개론(상)』 (서울: 성광문화사, 1985).
- Fretheim, T. E., *The Pentateuch*,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 Gray, G. B., *Numbers*,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ICC), (Edinburgh: T&T Clark, 1976).
- Harrison, R. K., *Number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92).
- Leveen, B. A., *Memory and Tradition in the book of Numb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_____, “Variations on a Theme: Differing Conceptions of Memory in the Book of Numbers,” *JSOT* vol. 27 (2002), 201-221쪽.
- Milgrom, J., *Number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New York: The Jewish Publication, 1990).
- Milne, P. L., *Vladimir Propp and the Study of Structure in Hebrew Biblical Narrativ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8).
- Mulder, M. J.(ed.), *Mikr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 Noth, M., *Das Alte Testament Deutsch 7, trans. James D. Martin, The Old Testament*

- Litera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8).
- Novick, T, "Law and Loss: Response to Catastrophe in Numbers," *HTR* 101: 1 (2008), 1-14쪽.
- Olson, D. T, *Numbers*,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6).
- Patt, D, *What is Structural Exegesis?*, (이 승식 옮김), 「구조주의적 성서해석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 Phillips, A, "The Case of Woodgatherer Reconsidered," *VT* 19 (1969), 125-128쪽.
- Sherwood, S. K, *Leviticus, Numbers, Deuteronomy, Berit Olam Studies in Hebrew Narrative & Poetry*,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1).
- Watts, J. W, *Reading Law*,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 Wenham, G. J., *Exploring the Old Testament*, (Downers, vol. 1), (Grove: InterVarsity Press, 2003).
- Wevers, J. W, *LXX-Notes on the Greek Text of Numbers-*, (Atlanta: Schlar Press, 1999).
- _____, *Text History of the Greek Number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2).

검색어

문맥
 안식일
 관례
 고의 (의도적)
 구조

An Interpretation for the Meaning and Role of

the Episode of the Wood-gatherer on Sabbath: A study of Redaction Criticism and Structural Criticism on Numbers 15: 32-36.

Jin Myung Kim, T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 Old Testament

Seoul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What is the meaning and role of the episode of the wood-gatherer on Sabbath in Numbers 15: 32-36? Some scholars proposed to see Num 15: 32-36 in the connected context of the catastrophic events in Num 13-14(Tzvi Novick, A. Leveen, D. T. Olson). It signals the continuity of God's relationship with Israel of the wilderness; By insisting that the Sabbath-breaker be punished, God asserts the continuity of this relationship. But Num 15: 32-36 has its own meaning and role in the context of chapter 15.

This study tried to show that 15: 32-36 is connected with 15: 30-31. Num 15: 30-31 introduced the law for the punishment of intended sin. The connected verses 32-36 role as a concrete precedent for the law of death penalty. These contents are proved by Reduction Criticism. Structural Criticism showed the surface structure (life and death, obedience and disobedience) and the deep structure (God as the law-giver and the judge of the intended sin / the intended sin of a wood gatherer is a guilt against God) in Num 15: 30-36. Comparing MT and LXX of Num 15: 32-36 shows that the plural form of the sabbath in LXX is different from the singular form of the sabbath in MT. These elements in LXX also show that the nuance of the intended breaking of the sabbatical law is repeated in the sabbaths.

The combination of the diachronic method and the synchronic method for Num 15:32–36 can be perceived as a co–assistant method to interpret the text.

Key word

context

Sabbath

precedent

intended

structure

■투고일: 2011년 4월 16일

■심사일: 2011년 4월 20일

■게재확정일: 2011년 5월 8일